민선4기 출범 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박 준 영 전남도지사

"조선·신소재산업 등 대형 프로젝트 계속 추진"

3일 취임식을 가진 박준영 전남지사가 꾸려가는 전남도정 4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선 4기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사 여부가 목전에 와있기 때문이다.

박 지사는 민선 4기야말로 전남이 명운을 걸어야할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도민과 지역사회 각 부문이 지역발전을 위해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계획도 밝혔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전남의 명운이 걸린 민선 4기에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성장동력 육성과 세계적인 문화관광산업 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철도·항공시설 개선 1시간대 고속교통망 구축

한옥 보급 농촌 체험…섬 활용 해양관광산업 육성

정보·생물·나노·우주 등 미래산업 기반 조성

광주·전남 상생 원칙 '명품' 혁신도시 만들어야

- 민선 4기에는 도정운영의 기본 틀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도정 운영 방향을 '웃음과 행복의 땅, 풍요와 희망의 땅, 녹색의 땅 전남 건설'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펴 나가겠다. 민선 3기 각종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남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과 터전을 닦아 나갈 방침이다.

- 민선 4기에 이 것만은 직을 걸고라도 완성시키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겠다고 작정한 일이 있다면.

▲도정의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있겠나? 굳이 역점사업을 꼽으라면 전남 전 지역을 아우르는 '미래성장의 동력' 육성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첨단산업육성, 친환경농업확대, 5대 신도시의 친환경적 개발에 주안점을 두겠다.

먼저 전남 22개 시군을 동·중남부·광주근교·서부권 등 4대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성을 살려 고루 잘 사는 풍요로운 전남 건설에 도정의 초점을 맞추겠다. 또 전남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 지역이 1시간 대로 접근가능토록 고속교통망 확충에도 역점을 두고 고속도로와 철도 등 관련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

다른 지역보다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춘 친환경 생명산업의 메카로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도민들이 건강하고 풍족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밀고 나가 지역발전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겠다.

-전남의 민선 4기 역시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 여건이 불리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다른 지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전남이 국비지원 사업 등에서 다른 지역과 똑같은 페이스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 전남은 늦은만큼 더욱 빠른 속도를 요구한다. 중앙 정부의 지원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고 용역을 거쳐 심의를 통과하려면 1~2년이 걸리는 데 과거와 마찬가지로 해서는 또 뒤지고 만다.

따라서 앞으로 전남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신속하게 결정한 후 곧바로 사업에 착수해야만 시간을 벌 수 있다. 우리 지역의 독특한 여건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

- 민선 4기에도 '먹고 사는'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의 근간을 지켜온 농촌활성화 대책은 있나.

▲우선 전남 전통산업의 뿌리인 농업을 살려나가겠다. '3농(농업+농촌+농업인) 정책'을 중점 추진해 농촌의 부활에 힘쓰겠다. 농촌에 도시 못지않은 교육·문화·복지공간을 확충해 '행복마을'로 가꾸겠다.

빈집이 늘어가는 농촌의 현실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면소재지 중심으로 마을을 통합하고 재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농업인들의 주된 생활근거지인 농지가 각 마을에 산재해 이동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몇 군데를 골라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문제점을 해소하며 확대해 나가겠다. 농촌지역 인구가 매년 크게 줄어들고 마을별로 흩어져 거주하는 바람에 복지서비스 비용도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면소재지에 각종 복지 및 문화시설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주거환경을 고쳐 나갈 방침이다.

또 농촌에 한옥을 대대적으로 보급해 농촌마을도 살리고 민박 등 체험관광 산업과 연계해 전남도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

- 전통산업 활성화와 함께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선산업 및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등 지역 산업지도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겠다. 정보산업·생물산업·나노산업·우주산업 등 미래산업을 착실하게 진전시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우리 지역의 해양 및 산림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개발하고 강렬한 햇볕과 바람, 바이오가스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크게 높이겠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활용해 해양관광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민의 꿈이 담긴 국제규모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과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 그동안 추진해왔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건설, 무안공항 조기개장 등 전남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이 기대보다는 진척이 늦다. 특별한 대안이 있나.

▲국가 기간산업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지방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경제 논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검토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걸맞는 논리를 개발해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겠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사업은 하반기 각종 개발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고 투자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관광레저 및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 등 지역의 미래가 걸려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와 지역민들의 역량을 모아 조기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최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추진 단계에서 면적과 위치를 놓고 마찰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공동혁신도시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서울처럼 복잡한 도시를 다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새로운 혁신도시는 반드시 친환경적이고 삶의 여유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는 당연히 면적도 필요한만큼 확보해야 하고 호수나 자연하천을 끼고 있어야 한다. 주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는 공원도 갖추어야 한다.

이미 박광태 광주시장과 공동혁신도시 건설로 광주·전남이 '상생'하자는 대원칙에 약속한 바 있고 서로 이견은 없다. 농촌이 잘 돼야 도시의 상권도 활기를 띠게 된다. 따라서 혁신도시를 통해 양 시도가 모두 잘 살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혁신도시 위치를 광주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옮기자는 것은 일부 공무원의 발상으로 여기고 있다. 혁신도시는 어느 도시보다 뛰어난 '명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건설해야 한다.

- 민선 4기의 가장 중요한'동반자'인 지역주민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나.

▲무엇보다 도민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의(義)'롭게 살다보니 생활이 다른 지역보다 어렵게 됐다. 이제 지역주민들도 과거의 패배주의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과연 가능할까?'하고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절대 이뤄낼 수 없다. 모처럼 맞은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기 위해 자신감을 갖고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임기 4년동안 무슨 업적을 남겼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일할 생각은 전혀 없다. 누가 지사직을 맡더라도 꼭 해야할 일을 하겠다. 지역 각계 모두가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책임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